

88.10.25

여자기술원 개선방안 초점

〈보 사 위〉 보사위의 서울시 여자기술원에 대한 감사에서 박영숙·이철용 의원(평민) 등은 기술원 입소절차, 원내의 가혹행위, 취업대책등에 대해 집중추궁했다.

박영숙 의원(평민)은 “현재 수용인원이 정원인 2백50명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96명에 불과한데 이는 윤락여성이 1백만에 육박하는 등의 증가추세와는 모순되는 것이 아니냐”며 “이 기관이 존재하는 목적은 무엇이며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려면 어떻게 개선되어야 하는가”고 물었다.

의원들은 질의를 끝내고 낮 12시10분께부터 30분 동안 교육관, 식당 등을 돌며 원생들과 면담을 벌였다.

면담중 이철용 의원은 자신이 〈어둠의 자식들〉을 쓴 이철용 의원이라며 원생들과 은어를 사용하면서 적극적인 면담을 벌였는데 원생들은 대부분 “빨리 나가고 싶다.” “억울하다”고 말했다.